

## 창세기 22장의 문학적 위치와 스토리텔링: 아브라함 가족 내러티브의 관점으로

김도형(서울기독대)

---

### 1. 서언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던 이야기는 학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sup>1</sup> 모벌리(R. W. L. Moberly)는 창세기 22장에 전개되는 내용의 범위, 깊이, 서술방식 등의 독특성과 성서 저자들의 시대와 이후 다른 이야기들에 비해 논란이 많고 족장 이야기들 가운데 대표적일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sup>2</sup> 이 장은 흐름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 부분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번제(1-19절)이며, 둘

---

1 윌터 브루그만 외, 「신학의 렌즈로 본 구약개관」 (차준희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133-134. 원제는 W. Brueggemann et al., *A Theological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Nashville: Abingdon Press, 1999); Joseph Blenkinsopp, *Abraham: The Story of a Life* (Grand Rapids: W.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15), 140-160.

2 J. W. 로저슨, R. W. L. 모벌리, 「창세기 연구 입문」 (민경진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5), 165. 원제는 두 권으로 나뉘어 있다. J. Rogerson, *Genesis 1-11, Old Testament Guide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1); R. W. L. Moberly, *Genesis 12-50, Old Testament Guides* (Sheffield: JSOT Press, 1992), 39.

째 부분은 나홀과 리브가의 족보(20-24절)에 관한 내용이다. 전통적으로 독자들은 첫 부분을 ‘하나님의 시험’<sup>3</sup>과 ‘아브라함의 믿음’<sup>4</sup> 또는 ‘이삭의 희생제사’<sup>5</sup> 등으로 읽어왔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시험하며 노년에 얻은 자식을 바치도록 요구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사건은 이삭의 희생제사 주제로 볼 때 아버지가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한 결박(binding)이라는 점에서 아케다(Aqedah)로 일컬어지기도 한다.<sup>6</sup>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묵묵히 따르며 희생제사를 수행하고 주도적으로 사건을 진행한 인물로 이해될 수 있지만, 텍스트를 읽는 독자에게 협소한 시각에 머무를 수 있다.<sup>7</sup> 창세기 22장은 12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명령과 소명에 따른 아브라함 개인의 일대기뿐만 아니라 약속으로 낳은 아들을 통해 하나님 경외의 극치를 보여준다. 왜냐하면 이 장은 아브라함 이야기 가운데 문학적, 신학적으로 가장 정점에 위치하고 신앙적인 성찰을 보여 주며

- 
- 3 정석규, 「구조로 읽는 창세기」 (서울: 프리칭아카데미, 2006), 204-219; 강규성, 「창조주 하나님의 방문」 (서울: 예영B&P, 2010), 122-126.
  - 4 George W. Coats, “Abraham’s Sacrifice of Faith: A Form-Critical Study of Genesis 22”, *Interpretation* 27 (1973), 389-400.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히 11:17, 개역개정)로 소개된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일컫는 이스라엘 족장들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이 할당되고 있다(8-10, 17-19절).
  - 5 김의원, 「창세기 연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4), 378-392.
  - 6 Jacques Doukhan, “The Center of the Aqedah: A Study of the Literary Structure of Genesis 22:1-19”, *Andrew University Seminary Studies* 31.1 (1993), 17-28; Gordon J. Wenham, “The Akedah: A Paradigm of Sacrifice”, David P. Wright, David Noel Freedman, and Avi Hurvitz (eds.), *Pomegranates Golden Bells: Studies in Biblical, Jewish, and Near Eastern Ritual, Law, and Literature in Honor of Milgrom* (Winona Lake: Eisenbrauns, 1995), 93-102; 서명수, “아케다(Aqedah) 이야기(창 22:1-9)의 재해석”, 「구약논단」 14집 (2003), 7-25; 김상기, “이사야 63장 16절의 관점에서 본 아케다 이야기”, 「신학연구」 57집 (2010년 12월), 8-32; 하계상, “신정론적 관점에서 본 아케다(The Aqedah): 최종 형태의 본문으로서의 창세기 22장 1-19절 새로 읽기”, 「구약논단」 54집 (2014), 90-126.
  - 7 민경구, 「다시 읽는 창세기」 (서울: 이레서원, 2019), 181.

이에 따른 후대의 편집비평적 장치의 일환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기 때문이다.<sup>8</sup>

반면, 창세기 22장 1-19절을 이삭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들어 있는 “이삭의 이야기”<sup>9</sup>로 해석될 수 있다. 헬라 시대 유대 문헌에서는 이삭을 영웅시하거나 신앙의 본보기로서 자발적인 희생과 믿음, 고난의 선례로 읽히기도 한다.<sup>10</sup>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을 여성 신학적 해석의 방향으로 읽을 때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등장하지 않는 것도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sup>11</sup> 창세기 22장 전체 문맥 상으로 볼 때 20-24절에 나오는 이른바 ‘나홀의 후예’에 관한 내용 역시 왜 이 장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는지 앞 단락과의 연결성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다. 이후 23장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사라의 죽음에 관한 기록도 다른 부차적인 설명 없이 언급되지만 단순하게 보이지 않는다.<sup>12</sup> 이 장의 독자로서는 사라와 관련하여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있었던 사건에 이어 추가적인 설명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궁켈(H. Gunkel)은 창세기 22장 1-19절이 이교도의 인신제사(인신공양)를 금

---

8 한동구, 「오경이해」(서울: 프리칭아카데미, 2006), 55-56; 우진형,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제사: 창 22장 1-19절의 편집 비평적 접근”, 「구약논단」 32집 (2009), 132-150.

9 서명수, 윗글, 8, 24.

10 이영미, “성서주석과 해석의 윤리: 창 22장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30집 (2008), 15-18.

11 Phyllis Trible, “Genesis 22: The Sacrifice of Sarah”, Jason P. Rosenblatt and Joseph C. Sitterson, Jr.(eds.), “*Not in Heaven: Coherence and Complexity in Biblical Narrative* (Bloomington &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91), 170-191; Wendy Zierly, “In Search of a Feminist Reading of the Akedah”, *Nashim: A Journal of Jewish Women’s Studies & Gender Issues* 9 (2005), 10-26; 이영미, 윗글, 10-30.

12 쉬니처는 창세기 22장 내러티브의 대부분 사항들이 단지 배후에 남겨져 있다고 했으며, 전통적인 유대교의 한 해석을 인용하여 아브라함이 이삭과 떠나기 전에 사라에게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말했고, 사라는 이후에 슬픔으로 죽었다고 소개한다. 게리 E. 쉬니처, 「토라 스토리」(박철현 옮김),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14), 152-154. 원제는 Gary Edward Schnittjer, *The Torah Story* (Grand Rapids: Zondervan, 2006).

지하고 동물 제사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본문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sup>13</sup> 그러나 공동체 특성을 부여하여 ‘아브라함 가족 내러티브’라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바라볼 때 내용면에서 인과적 의미로 제시될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는 사건과 함께 나홀과 그 가족에 관한 기록은 여러 가지 연구의 촉발과 분기점의 역할을 해온 것임에 틀림없다.

본 글은 창세기 22장에 관한 학자들의 다양한 시각들 가운데 아브라함 한 개인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아들 이삭을 포함하여 아브라함 가족 내러티브의 혈연공동체 관점에서 창세기 22장을 다소 폭넓게 읽어야 할 당위성을 제시하려고 한다. 독자가 창세기의 최종 본문을 읽을 때 근시안적인 시각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등장인물들의 역할과 상호관련성을 다룸으로써 참신한 역동성을 발견할 수 있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우선 창세기 22장이 첫 번째 족장 내러티브에서 차지하는 문학적 위치를 살핀다. 다음으로, 창세기 22장을 스토리텔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며, 이 장의 거시적인 전망을 제안할 것이다.

## 2. 창세기 22장의 문학적 위치

### 1) 아브라함 내러티브인가, 아브라함 가족 내러티브인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번제 사건을 이해하려면 이 단락이 창세기 전체 맥락에서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창세기 1-11장은 바벨탑 사건에 이르기까지 족장시대 이전

---

13 Herman Gunkel, *Genesis*, Mark E. Biddle(trans.), (Macon: Mercer University Press, 1997), 233-240.

에 관한 내용이다. 창세기 1-11장 9절은 태고의 창조 이야기로부터 보편적인 인류에 관한 내용이며, 이어지는 창세기 11장 10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족장 내러티브의 서언에 해당한다.<sup>14</sup> 창세기에서 첫 번째 족장 내러티브의 시작은 학자들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지만,<sup>15</sup> 성서 주석가들은 대개 아브라함의 소명 장면부터 죽음 기사에 이르는 창세기 12-25장까지를 아브라함 내러티브의 범주로 규정한다.<sup>16</sup> 롱맨 3세(Tremper Longman III)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 길을 이동하도록 지시한 명령(창 12:1)을 두 번째 창조기사와 비슷하다고 주장한다. 에덴동산에서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하여 새로운 민족을 세우기 위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것이다.<sup>17</sup> 슈니처(Gary E. Schnittjer)는 이 부분을 ‘아브라함 내러티브’(창 12:1-25:11)로 일컫는다. 그는 아브라함 내러티브를 다음과 같이 다섯 단락으로 설정한다.

A. 아브람이 부르심을 받음(12:1-9)

B. 후손을 기다림(12:10-20:18)

- 
- 14 웬함은 창세기 1-11장을 ‘원형적인 역사’(protohistory)라는 신성한 표현을 사용한다. 제임스 K. 호프마이어, 고든 J. 웬함, 켈튼 L. 스팅스, 「창세기 원역사 논쟁: 창세기 1-11장이 장르에 관한 세 가지 견해」(주현규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0), 117-160. 원제는 James K. Hoffmeier, Gordon J. Wenham, and Kenton L. Sparks, *Genesis: History, Fiction, or Neither? Three Views On the Bible's Earliest Chapters* (Grand Rapids: Zondervan Academic, 2015).
- 15 본 논고에서는 창세기 11장 10절을 첫 번째 족장 내러티브의 시작점으로 이해한다. 이에 관한 논의는 김도형, 「대라 족보(창 11:27-32)의 선교적 기능: 내러티브 관점을 중심으로」, 「대학과 선교」 38집 (2018), 175-177.
- 16 Ephraim A. Speiser, *Genesis* (3rd edn; AB 1; Garden City, NY: Doubleday & Company Inc., 1982), 85-189; Victor P. Hamilton,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17*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0); idem,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8-50*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5).
- 17 트렘퍼 롱맨 3세, 「어떻게 창세기를 읽을 것인가?」(전외우 옮김), (서울: IVP, 2006), 169-171. 원제는 Tremper Longman III, *How to Read Genesis*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5).

- C. 약속의 시작과 성취(21장)
- D. 아브라함의 시험(22장)
- E. 언약의 전수(23:1-25:11)<sup>18</sup>

쉬니처는 아브라함 내러티브에서 D에 위치하는 창세기 22장을 절정 장면(climactic episode)으로 분류하며, 통상적인 방식으로 이 단락의 주제를 하나님의 주도에 따른 ‘아브라함의 시험’으로 제시한다. 이외는 달리 렌즈버그(Gary Rendsburg)는 아브라함 싸이클(The Abraham Cycle)을 창세기 11장 27절부터 창세기 22장 24절까지 확정하고, 열 개의 단락으로 나누면서 창세기 22장을 마지막 부분에 배치한다.<sup>19</sup> 그러나 아브라함의 죽음 기사가 이후 창세기 25장 7-11절에 이르러서야 나오기 때문에 아브라함 내러티브를 22장까지 일단락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쉬니처의 경우에 아브라함 내러티브는 아버지 데라의 실패부터 시작되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과 22장 2절 두 번에 걸쳐서 ‘떠나다/가라’(lek-l'kâ 레크-르카)고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의 부름과 시험에 세 가지 요구사항이 점층적으로 좁혀진다고 주장한다. 이들

---

18 쉬니처, *읽기*, 136, 151; 웬함은 그의 주석서에서 창세기 11장 27절-25장 11절을 ‘아브라함 이야기’로 지칭한다. Gordon J. Wenham, *Genesis 1-15* (WBC 1; Grand Rapids: Zondervan, 1987); idem, *Genesis 16-50* (WBC 2; Grand Rapids: Zondervan, 2000).

19 렌즈버그에 따르면, 아브라함 싸이클(11:27-22:24)은 다음과 같다. A. 데라의 족보(11:27-32), B. 아브람의 영적 오딧세이의 시작(12:1-9), C. 이방 지역의 사래; 시련은 평화와 성공으로 끝남; 아브람과 롯 부분(12:10-13:18), D. 아브람이 소돔과 롯을 구하려 옴(14:1-24), E. 아브람과 언약; 이스마엘의 선언(15:1-16:16), E'. 아브라함과 언약; 이삭의 선언(17:1-18:15), D'. 아브람이 소돔과 롯을 구하려 옴(18:16-19:38), C'. 이방 지역의 사래; 시련이 평화와 성공으로 끝남;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부분(20:1-19), B'. 아브라함의 영적 오딧세이의 절정(22:1-19), A'. 나홀의 족보(22:20-24). Gary Rendsburg, *The Redaction of Genesis* (Winona Lake: Eisenbrauns, 1986), 28-29, 50. 이 책 각주 39번에서 폰 라트(Von Rad)와 데이비슨(Davidson)도 같은 의견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 외에 Jerome T. Walsh, *Style and Structure in Biblical Hebrew Narrative*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2001), 89-90. 국내 학자로 김재구 역시 ‘아브라함 이야기’(창 11:27-22:24)를 22장까지 다룬다. 김재구, 「창세기 로드맵」(서울: 홍림, 2018), 242-353를 보라.

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고향(your country), 친척(your people), 아버지의 집(your father's house)이며, 22장 2절은 아들(your son), 독자(your only son), 사랑하는 [자](whom you love)와 서로 상응한다는 점이다.<sup>20</sup> 이와 더불어 창세기 12-21장의 시간이 천천히 진행되면서도 이 장들 사이에 전체적으로 시간이 생략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문한다.<sup>21</sup> 쉬니처가 아브라함 내러티브를 다섯 단락으로 구분하고, 순서상 창세기 22장을 내러티브의 절정이나 정점의 위치로 본 것은 정당하고 명확하다. 그러나 이러한 단락 구분은 전통적인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족장인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국한될 뿐만 아니라 주변 가족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관계로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 더 나아가, 쉬니처 구조분석의 약점은 창세기 22장 20-24절에 나오는 나홀과 리브가 족보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5장에 나오는 이스마엘 족보에 관한 단락(창 25:12-18) 역시 아브라함 가족 내러티브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 내용들이 아브라함 개인 이야기 범주로 제한했을 때, 아브라함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본문들로서 충분한 고려사항이 될 수 없으므로, 내러티브의 흐름상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도르시(David A. Dorsey)가 지적하는 것처럼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 내러티브의 문학적인 개별 단위들은 원역사에 해당하는 1-11장과 비교할 때 정형적이지 않을 수 있다.<sup>22</sup> 족장 내러티브의 특징 가운데

20 쉬니처, *윗글*, 137, 151. 쉬니처와 같이 다른 학자들도 창세기 12장 1-9절과 22장 1-9절 사이의 유사성을 지적한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중점을 이루는 주요한 두 사건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Rendsburg, *윗글*, 27.

21 쉬니처, *윗글*, 151-152.

22 도르시는 창세기 1장 1-11장 26절을 14중 구조로 이루어진 두 개의 섹션으로 구분한다. David A. Dorsey, *The Literary Structure of the Old Testament: A Commentary on Genesis-Malachi* (Grand Rapids: Baker Books, 1999), 55-56.

데 한 가지는, 아버지로서 족장 중심의 기술이 집중된 것은 일부 인정되지만 가족 공동체 일원으로서 각 개인에 관한 이야기들 역시 내러티브 곳곳에 흩어진 채로 기술되었다. 코오츠(George W. Coats)는 셈 족보(창 11:10-26)로부터 이스마엘 족보(창 25:12-16)와 이스마엘 죽음 보도(창 25:17-18)까지 아브라함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개별적인 단위들(the individual units)로 분류한다.<sup>23</sup> 그러나 코오츠는 아브라함 이야기(창 11:10-25:26)와 이삭 이야기(창 25:19-37:2) 사이를 중첩시킴으로써(창 25:19-26) 이들 사이에 족장 내러티브의 범주나 단락을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음으로 그 경계가 모호하다. 이삭 가족 내러티브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이삭 톨레돏(*toledoth*)에 따른 시작점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 가족 내러티브는 25장 18절까지 구분했어야 한다. 하지만 개인 내러티브 관점에서는 이를 구분하기 어려운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족장이 아닌 각 개인별로 언급된 내러티브를 어떻게 고려하는 것이 정당할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창세기에서 내러티브의 단락 구분은 톨레돏 문구(*toledoth-formula*)<sup>24</sup> 또는 족보의 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세 명의 족장으로 대표되는 아브라함(창 11:27), 이삭(창 25:19), 야곱(창 37:2)이 그렇다. 흥미로운 사실은 아브라함 톨레돏이 없으며 그 대

23 George W. Coats, *Genesis, with an Introduction to Narrative Literature* (Grand Rapids: W.B. Eerdmans Pub. Co., 1983), 103-175.

24 창세기에는 히브리어 문구(*elle toledoth*)가 총 11회 나오며(2:4a, 5:1, 6:9, 10:1, 11:10, 27, 25:12, 19, 36:1, 9, 37:2), 사실상 족장 내러티브의 시작은 6회째에 해당하는 데라(11:27)로부터 간주될 수 있다. 한글 개역개정에서 “이것은 ~의 내력/계보이다”, “~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등으로 번역된다. 창세기의 구조를 톨레돏 문구를 중심으로 볼 때 창세기 1장 2-3절은 프롤로그이며, 2장 4절을 제외하면 항상 개인의 이름이 등장한다(아담, 노아, 노아의 아들들, 셈, 데라, [이스마엘], 이삭, 에서(2회), 야곱). 이후 10개의 에피소드가 있고, 반드시 거론된 사람이 주인공은 아니지만 단락의 시작과 죽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계의 흐름과 책의 통일성을 보여준다. 롱맨 3세, 「어떻게 창세기를 읽을 것인가?」, 80-81.



신 아버지 데라 톨레돏만 있을 뿐이다.<sup>25</sup> 아무튼 코오츠가 언급한 개별 단위에 해당하는 여러 자료나 족장이 아닌 인물들을 어떻게 족장 내러티브의 범주 안에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예를 들면, 족장 내러티브에는 사라, 하갈, 이스마엘 등 아브라함 이외의 가족 구성원들에 관한 내용이 산발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또한, 창세기 22장의 경우에 아버지와 함께 등장하는 수동적인 이삭<sup>26</sup>을 고려할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도 제기된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써 이른바 ‘아브라함 이야기’는 특정 인물에 한정된 것이므로 족장으로서 아버지의 위치뿐만 아니라 공동체로 범위를 넓혀 아브라함 가족 내러티브로 이해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창세기 족장 내러티브의 첫 부분이 창세기 11장 10절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셈과 데라의 족보로부터 본격적인 아브라함 가족 내러티브로 명명될 수 있다. 다만, 창세기의 족장 내러티브는 인물+가족 내러티브로 일컬을 때 인물은 족장이면서 아버지의 위치에 있고 이에 적합한 인물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다. 이들은 흔히 이스라엘 족장들의 하나님으로 지칭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며 신약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출 3:6, 15, 4:5; 마 22:32; 막 12:26; 눅 20:37; 행 3:13; 7:32 등).

아브라함(아브람)에 관한 본격적인 내용 전개는 창세기 11장 10절부터 시작되는 셈의 족보와 데라의 족보에 이어서 12장부터 소개된다. 김도형은 바벨탑 사건 이후부터 아브라함의 죽음 기사와 이스마엘의

---

25 김도형, *읽글* (2018), 163-187; 김도형, “이삭 가족 내러티브(창 25:19-37:1)의 문학적 구조와 스토리텔링”, 『구약논단』 74집 (2019), 224.

26 보스(Boase)는 이삭의 수동적인 모습에 관심을 갖고 그의 이야기에 접근한다. Elizabeth Boase, “Life in the Shadow: The Role and Function of Isaac in Genesis: Synchronic and Diachronic Readings”, *Vetus Testamentum* 51.3 (Jul. 2001), 312-335.

족보가 나오는 창세기 25장 18절까지 ‘셈과 데라의 족보와 아브라함 가족 내러티브’로 이미 주장한 바 있다.<sup>27</sup> 편의상 이를 축약하여 ‘아브라함 가족 내러티브’ 역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다음은 아브라함 가족 내러티브의 범주에서 창세기 22장의 위치를 살펴볼 차례이다.

## 2) 아브라함 가족 내러티브에서 창세기 22장의 위치

아브라함 가족 내러티브에서 창세기 22장 위치의 중요성을 파악하려는 이유는 룬맨 3세가 지적인 것처럼 하나님 명령의 불합리성과 상황적 오류 때문이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오랫동안 약속된 아들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이삭을 낳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믿음을 시험한다는 이유로 수십 년 기다린 끝에 어렵게 얻은 독자를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폰 라트(Von Rad)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요구가 극악무도한(monstrous) 것 이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sup>28</sup> 더 나아가 이삭이 약속된 자녀이므로(창 17:19, 21) 그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 그 약속을 파기하는 것과 같다.<sup>29</sup> 따라서 이 사건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전에 당면했던 어떤 위기적 상황에 비하면 또 다른 믿음의 험로가 아닐 수 없었다.

텍스트의 독자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진 ‘아브람’이라는 이름이 처음 언급된 곳은 창세기 11장 26절이다. 10절부터 시작되는 셈의 족보에서 마지막 9대 아버지 위치에 있는 데라의 세 아들(아브람, 나홀,

---

27 김도형, *읽글* (2019), 234. 이 글에서 창세기의 전체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창조부터 바벨탑 내러티브까지(창 1:1-11:9), (2) 셈과 데라의 족보와 아브라함 가족 내러티브(창 11:10-25:18), (3) 이삭 가족 내러티브(창 25:19-37:1), (4) 야곱 가족 내러티브(창 37:2-50:26). 또한, 김도형, “창세기 내러티브 읽기: 익숙함과 낯섦의 주제”, 『구약논단』 84집 (2022), 43-76(특히 58-66)을 보라.

28 Gerhard Von Rad, *Genesis: A Commentary* (London: SCM Press LTD, 1972), 239.

29 룬맨 3세, *읽글*, 180.

하란) 가운데 첫 번째로 등장한다. 이에 따라 아브람 이름의 기원은 셈과 데라의 족보에서 비롯되며, 1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브라함 위주로 가족 내러티브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김도형은 셈과 데라의 족보와 아브라함 가족 내러티브(창 11:10-25:18)가 창세기 전체의 스토리텔링 가운데 전개에 해당하며, 이 부분을 ‘익숙함-언약과 약속, 낯설-이방인’ 관계로 논의하였다.<sup>30</sup> 그러므로 아브라함 가족 내러티브는 창세기의 족장 내러티브 첫 번째 단락에 해당되며 이를 문학적으로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 아브라함 가족 내러티브(창 11:10-25:18)

#### A 셈과 데라의 족보(11:10-32)

B 아브라함을 선택하심: 자손에 대한 약속과 가나안 땅으로 이동(12:1-9)

C 하나님의 보호: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 왕으로부터 위기를 벗어남(12:10-20)

D 롯과 헤어짐, 아브라함이 롯의 목숨을 구함(13:1-14:24)

E 아브라함 언약, 하갈과 이스마엘의 고통, 할례-언약의 표징(15:1-17:27)

E' 아들 출생을 약속(언약)받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모압과 암몬의 조상(18:1-19:38)

D'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랄 왕으로부터 목숨을 구함(20:1-18)

C' 하나님의 보호: 이삭 출산 후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남, 이삭이 위기에서 벗어남(21:1-23:20)

B' 리브가를 선택하심: 아브라함의 종 메소포타미아로 이동, 아브라함의 죽음(24:1-25:11)

A' 이스마엘의 족보(25:12-18)

30 김도형, 윗글 (2022), 62-63.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다섯 가지 주제로 ABCDE E'D'C'B'A'의 교차대구구조(Chiasmus) 또는 거울 이미지 기법<sup>31</sup>(mirror imaging)임을 알 수 있다. 이와 동시에 A부터 E까지 첫 번째 다섯 단계와 E'부터 A'까지 상응하는 두 번째 다섯 단계로써 총 10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까지는 족보-선택-보호-목숨-언약이다. 두 번째 다섯 단계는 앞부분과 거꾸로 약속(언약)-목숨-보호-선택-족보의 순서로 서로 대칭이 되는 구조이다.

이 구성의 특징은 처음과 마지막 단계의 주제가 족보이다. 셈과 데라의 족보(A)와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하여 그의 가족 중심의 이야기 전개로 시작된다. 특징적인 것은 이 단락의 마지막 단계로써 A'는 이스마엘의 족보(창 25:12-18)로 구성되는데 A와 수미쌍관(Inclusio)의 모습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약속된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 족보가 아브라함 가족 내러티브의 마지막에 위치하는 것은 쉽게 간과될 수 없다. 다음으로, BB'에서는 선택과 이동의 주제이다. 이는 두 주제가 인과적이며 필수적으로 연결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게 되면 '이동'이라는 모험을 한다. 아브라함 가족 내러티브에서 아브라함과 리브가가 대표적이다. B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으며, B'에서 하나님은 리브가를 이삭의 배우자로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의 종은 브두엘의 딸 리브가를 만나러 메소포타미아로 이동한다. 결국 아브라함과 리브가는 모두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하게 된다.

세 번째 단계인 CC'는 하나님의 보호와 관련 있다. C는 가나안 땅에 기근으로 인하여 위기를 피해 애굽으로 갔던 아브라함이 사라가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감추고 누이로 말했다가 발각되지만, 극적으로

31 쉬니처, 윗글, 19.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창 12:10-20). 여호와께서 애굽 왕과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렸기 때문이다(12:17). 이 일로 애굽을 떠날 때 바로(Pharaoh)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에게 속한 모든 소유물을 보내도록 했다. C' 역시 하나님의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 사라가 이삭을 낳고, 이후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음성을 들으셨다(창 21:16-17). 또한, 이삭이 번째로 바쳐질 아케다의 위기에서 벗어난 뒤 어머니 사라를 죽음을 맞이한다(창 22-23장). DD'는 목숨이 주제이다. D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땅을 분배하며 헤어졌지만, 롯이 주변 지역에 살던 이방 왕들에게 사로잡혀갔을 때 그의 목숨을 구하는 내용이다(창 13:1-14:24). D'는 창세기 12장에 이어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발각되지만,<sup>32</sup>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그녀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창 20:1-18).

마지막 EE'는 언약과 약속에 관한 주제이다. E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상속자에 관한 것과 자손을 위해 언약을 세우신다(창 15:1-21). 또한, 하갈과 이스마엘이 사라로부터 벗어나 광야에서 고통을 당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셨다(창 16:1-16). 창세기 17장에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다시 언약을 맺으며 할례가 그 표징이 되었다(1-27). 눈여겨 볼 사항은 아브라함 언약과 언약의 표징인 할례 사이에 하갈과 이스마엘의 고통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E'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방문한 세 사람으로부터 장차 있게 될 아들 출생을

32 알터(Alter)는 '배우자 찾기'라는 주제가 '우물'과 관련이 있고, 이러한 반복적인 관습(convention)을 '배우자 찾기 전형장면'(The Betrothal type-scene)이라고 불렀다. Robert Alter, *The Art of Biblical Narrative* (New York: Basic Books, 1981), 47-62(특히 52-60을 보라). 이와 비슷하게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서 아브라함이 애굽 왕을 속이는 것과 창세기 20장 1절 이하에서 그랄 왕을 동일한 이유로 속인 것도 일종의 속임수 전형장면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아들 이삭 역시 그랄에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리브가를 누이라고 하고 아내로 말하지 않은 것도 동일한 속임수 전형장면에 해당한다(창 26:1-11).

약속받는다(창 18:1-10). 하지만 계속 이어지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모압과 암몬 자손 조상에 관한 내용은 아브라함과 다소간 동떨어진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창 19:1-38).

렇다면, 이러한 구조에서 창세기 22장의 위치는 어떤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가? 이를 위해 아브라함 가족 내러티브(창 11:10-25:18)를 플롯(plot)과 시퀀스(sequence)의 흐름에 따라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의 다섯 단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sup>33</sup> 즉, 셈과 데라의 족보와 아브라함 가족 내러티브의 스토리텔링은 발단(AB)-전개(CD)-위기(EE')-절정(D'C')-결말(B'A')로 구성할 수 있다. 이를 연결하면 아래와 같다.

### 아브라함 가족 내러티브의 스토리텔링

- (1) 발단(AB) - 셈과 데라의 족보 /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며 이동(창 11:10-12:9)
- (2) 전개(CD) - 아브라함과 사라, 애굽 왕으로부터 위기를 벗어남 / 아브라함이 롯의 목숨을 구함(창 12:10-14:24)
- (3) 위기(EE') - 아브라함과 아들, 자손에 대한 언약과 할례 / 하갈과 이스마엘의 고통 /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및 모압과 암몬의 조상(창 15:1-19:38)
- (4) 절정(D'C') - 아브라함과 사라, 그랄 왕으로부터 목숨을 구함 / 이삭 출산 후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남 / 이삭, 번제물의 위기에서 벗어남 / 사라의 죽음(창 20:1-23:20)
- (5) 결말(B'A') - 리브가, 이삭의 아내로 선택되어 이동 / 아브라함의 죽음 / 이스마엘의 족보(창 21:1-25:18)

---

33 아밋(Amit)은 성서 내러티브의 구조를 다섯 단계로서 발단(Exposition)-전개(Complication)-변화(Change)-해소(Unraveling)-결말(Ending)을 제시한다. Yairah Amit, *Reading Biblical Narratives: Literary Criticism and the Hebrew Bible*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1), 47.

아브라함 가족 내러티브의 **발단**은 ‘족보’와 ‘선택’이라는 주제적인 측면에서 시작된다. 이 내러티브의 주도적인 역할은 절정 중반부까지 아브라함이며, 이삭이 번제물의 위기에서 극적으로 벗어나는 장면은 쉬니처의 표현처럼 ‘야누스 기법’(Janus), 즉 ‘쌍방향적 전환점’(a bidirectional turning point)과 같다. ‘이 기법은 뒤를 돌아보는 동시에 앞을 내다보는 것과 같이 양방향을 동시에 향하고<sup>34</sup> 있는 것처럼 서서히 약해지는 아브라함과 반대로 점층적으로 강화하는 이삭이 동시에 이런 양상을 보이는 것과 같다. 창세기 5장의 아담 족보에서 노아가 10대에 위치한 것과는 다르게 창세기 11장 10절과 27절에 나오는 셈과 데라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이 10대 장자의 위치에 등장하지 않는 것은 독자를 당황스럽게 한다.<sup>35</sup> 따라서 처음부터 이 내러티브는 아브라함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개에서 대표적인 두 사건이 등장한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 왕으로부터 위기를 벗어나는 것(12:10-20)과 소돔을 노략했던 엘람 왕, 고임 왕, 시날 왕, 엘라살 왕 등 4명이 롯을 끌고 갔을 때 아브라함이 혼란된 318명과 함께 단까지 쫓아가서 조카를 구출하는 내용이다(창 14:1-16). 이 단계에서는 아브라함 자신과 조카의 목숨이 위태로웠던 상황이었지만 모두 해결된다. 다음으로, 위기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며 그 표징으로써 할례를 명령하신 장면이다(창 15, 17장). 이들 장 사이에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는 동안 아브라함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먼저 임신하면서 여주인을 멸시하여 사라가 그녀를 학대함으로써 이스마엘과 광야로 도망치는 장면(창 16장)과, 이후 소돔과 고모

34 쉬니처, *읽글*, 18-19.

35 셈의 족보는 창세기 11장 26절 9대 데라에서 멈춘다. 그러나 다음 구절에 “아브라함은 팔십육 세에 이스마엘을 낳았고 백 세에 이삭을 낳았더라”라는 내용이 왜 나오지 않는가에 관해서 김도형, *읽글* (2018), 175-181(특히 169)을 보라.

라의 멸망 및 모압과 암몬 조상에 관한 언급이 열거된다(창 19장). 이것은 마치 하나님과 언약의 순간에도 고통이나 멸망이 이어지나 이스라엘의 이방인 조상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 차원에서 위기의 단계를 새롭게 확인할 수 있다.

절정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랄 왕으로부터 목숨을 건지는 장면(20장)과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게 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또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다(21장). 이 가운데 정점에 이르는 부분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는 장면이다(22장). 이 사건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을 능동적인 행위로 순종함으로써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이삭은 수동적이지만 부전자전격으로 인내하며 순종하는 자세를 취한다. 절정의 마지막 부분은 사라의 죽음이다. 그러나 그녀의 죽음은 의문의 여백을 남긴다.<sup>36</sup> 셰릴 엑섬(J. Cheryl Exum)도 주장하는바,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모리아 땅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사라에 관한 어떤 언급이나 설명도 없이<sup>37</sup> 죽음의 소식은 갑작스럽게 다가온다. 창세기 22장 사건을 오히려 '사라의 회생'<sup>38</sup>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비록 텍스트에서 언급되지 않지만, 여성 배우자의 측면에서 고려할 때 텍스트의 독자는 사라가 어떤 입장이었을지 여전히 궁금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라의 소식은 전후맥락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땅에서 제사를 드린 후 리브가의 등장과 사라

---

36 쉬니처, 윗글, 153-154. 쉬니처는 전통적인 유대교의 해석을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떠나기 전에 사라에게 앞으로 있을 일을 말해주었다는 것이다. 사라는 그 즈음에 슬픔으로 죽었는데 창세기 23장에서 죽음으로 시작되는 내용이 그 주장의 증거라고 소개한다고 인용한다.

37 J. Cheryl Exum, *Fragmented Women, Feminist (Sub) versions of Biblical Narratives* (Valley Forge: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3), 102.

38 이영미, 윗글, 22.



의 죽음 기사만 나올 뿐이다. 이것 역시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처럼 사라와 리브가의 세대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는가.

**결말**은 본격적으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의 등장 이 이어지며 분량 면에서 가장 길게 할당된다(창 24장). 유연희는 이 부분을 자세히 다루며 리브가 중심으로 본문을 해석한다.<sup>39</sup> 이후 아브라함 가족 내리티브는 아브라함의 죽음 기사(25:1-11)와 이스마엘 족보(25:12-18)로 마무리된다. 결말 부분의 세 가지 주제인 선택, 이동, 족보는 발단 부분과 일치한다. 발단에서 하나님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이래 그 역할을 리브가와 이삭에게 전달되는 상황처럼 묘사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브라함 가족 내리티브 구성의 특징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면서도 텍스트 곳곳에 그의 가족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으로 확장되는 후손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넓게 확장된다는 점이다. 브루그만(W. Brueggemann)의 표현대로 “모든 개인은 앞으로 등장할 가족 안에 소속되어 있다”<sup>40</sup>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각각의 인물들은 가족의 일원으로서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다. 이는 이삭 가족 내리티브(창 25:19-37:1)에서 이삭과 관련된 자료들 사이에 다른 인물들이 다양하게 삽입된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sup>41</sup> 이런 측면에서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 가족 내리티브에 등장하는 여러 차례의 위기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면서도 새로운 족장 세대의 전환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창세기 22장 본문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자.

39 유연희, 「아브라함과 리브가와 야곱의 하나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31-111.

40 브루그만 외, 윗글, 134.

41 김도형, 윗글 (2019), 235-237.

### 3. 창세기 22장의 스토리텔링 및 해석

#### 1) 창세기 22장의 스토리텔링

창세기 22장은 장르에 있어서 내러티브(1-19절)와 족보(20-24절)로 구성되어 있지만, 전반부의 경우 구조적인 완결성과 테두리(inclusio)로 짜여진 ‘문학적 통일체’<sup>42</sup>를 보여준다. 스카(Jean-Louis Ska)는 창세기 22장 1-19절을 ‘아브라함의 시험’ 또는 ‘이삭의 희생제사’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평이하게 접근한다. 그는 14절이 첫 번째 결론이며, 15절은 여호와의 사자가 11절에 이어 ‘두 번째로’(shenit 쉐닛)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손에게 복을 주는 장면이라고 설명한다. 이와 함께 15-18절의 경우, 여러 주석가들에 의하면 나중에 첨가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아브라함의 시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기에 필수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sup>43</sup> 그러나 15절 이하의 텍스트는 앞부분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생명을 보호받았듯이 그 자손이 번성하고 복을 받는다는 것은 주제적인 측면에서 인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창세기 22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독자가 정작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은 1-19절의 아브라함과 이삭 관련 이야기 이후에 언급되는 20-24절이다. 역사비평학자들이 15-18절을 편집비평적 입장에서 후대의 첨가로 제안하면서 20-24절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창세기 22

---

42 정석규, 윗글, 204-219. 정석규는 창세기 22장 1-19절이 테두리(inclusio)를 중심으로 두 문단이 있고, 그 안에 주요 인물에 따라 다섯 개, 총 일곱 개의 대문단으로 나눈다(22:1a, 22:1b-2, 22:3-10, 22:11-12, 22:13-14, 22:15-18, 22:19). 그러나 아쉽게도 20-24절을 다루고 있지 않다.

43 Jean-Louis Ska, *Introduction to Reading the Pentateuch* (Winona Lake: Eisenbrauns, 2006), 82-83. 이러한 의견을 주장하는 학자들 가운데에는 코오츠, 세터스, 알렉산더 등이 있다. Coats, “Abraham’s Sacrifice of Faith: A Formcritical Study of Genesis 22”, 389-400; John Van Seters, *Abraham in History and Tradition*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75), 227-248; T. Desmond Alexander, “Genesis 22 and the Covenant of Circumcision”, *JOT* 25 (1983), 17-22을 보라.

장 전체를 조망하는 데 있어서 이를 간과한 것임에 틀림없다. 창세기에 서 첫 족장 관련 내용을 아브라함 가족 내러티브라는 공동체 전망에서 볼 때 이 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하지만, 마지막은 나홀의 족보와 더불어 다음 세대 이삭의 배우자로 예정된 리브가를 소개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족장으로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자신의 지위를 서서히 승계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연상케 한다. 오히려 새로운 여족장(matriarch)의 등장까지 기대할 수도 있다.<sup>44</sup> 이러한 다양한 관점을 염두에 두면서 창세기 22장 1-19절과 20-24절 두 단락을 연결하여 스토리텔링에 따라 다섯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구조적으로 특이한 점은 22장 1절(*vayehi 'ahar had'barim ha'eleh* 바예히 아하르 하드바림 하엘레)과 20절(*vayehi 'aharê had'barim ha'eleh* 바예히 아하레 하드바림 하엘레) 모두 ‘그/이 일 후에’(개장개역)라는 반복적인 부사구가 사용되어 두 가지 개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속적인 스토리텔링에 의하면 두 번째 단락(20-24절)은 필연적으로 있어야 할 부분이다. 이에 따라 창세기 22장의 내러티브 구성을 들여다보자.

### 아브라함과 이삭의 번제 및 나홀과 리브가의 족보 내러티브(22:1-24)

#### (1) 발단 -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브라함의 순종: **생명을 요구함**

A.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 부르시고 번제를 드리도록 함(1-2절)

B. 아브라함이 이삭과 사흘째 하나님이 일러주신 장소에 도착(3-4절)

44 엑셈은 여족장(matriarch)의 의미 있는 역할을 자녀 출생과 관련하여 다룬 바 있다. Exum, 윗글, 102-107; 유연희, 윗글, 15; 족장 내러티브의 여성 족장들에 관하여 김도형, “유다-다말 이야기 해석에 대한 새로운 제안”, 『구약논단』 50집 (2013), 188-194를 참고하라.

(2) 전개 - 아브라함과 이삭의 번제 준비

- C.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일차적으로 머물도록 하고 번제 나무를 든 이삭과 동행함(5-6절)
- D.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의 위치를 묻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준비하실 것을 대답함(7-8절)

(3) 위기 - 이삭의 결박과 도살 위기: 생명의 절박함

- E.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도착한 뒤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에서 죽이려 함(9-10절)

(4) 절정 - 두 번에 걸친 여호와와의 사자 등장과 후손의 번성을 약속함

- F. 여호와와의 사자가 이삭에서 손을 대지 않도록 하며 아브라함이 숫양을 번제로 드림(11-13절)
- G. 아브라함이 그 땅을 여호와 이레로 부르며 여호와와의 사자가 두 번째 부름(14-15절)
- H. 여호와께서 칭찬하며 복을 주고 씨가 번성할 것과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거주함(16-19절)

(5) 결말 -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리브가 출산의 소식: 생명이 주어짐

- I.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소식; 나홀과 밀가 사이에 여덟 자녀를 낳음(20-22절)
- J. 나홀과 밀가의 아들 브두엘이 리브가를 낳음(23절)
- K. 나홀의 첩 르우마가 네 자녀를 낳음(24절)

위 구조에 따르면, 사실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번제 사건(1-19절) 및 나홀과 리브가의 족보(20-24절)가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서로 뗄 수 없는 인과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앞부분은 희생제사에 관한 것이며, 뒷부분은 족보에 해당한다. 이들 제사와 족보는 각각 생명을 요구하며, 생명의 절박함이 있었고, 생명이 주어졌다는 점에서 '생명'이라는 공통분모를 갖는다. 내러티브 구조 또한 처음과 마지막 단락에서 수미

쌍관(inclusio) 또는 문학적 테두리를 제공한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번째와 네 번째 단계 역시 생명과 관련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전자는 생명을 바치는 것이며, 후자는 생명 번성을 약속한다. 결과적으로, 창세기 22장의 흐름은 생명의 중요성으로부터 생명의 계승이라는 의미의 연장선상에 있다. 각 단계별로 정리하면, **발단**은 독자 아들의 생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고자 이삭과 새로운 장소까지 이동하게 된다(1-4절). **전개**는 아브라함이 종들과 떨어져서 이삭과 함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함께 나아간다(5-8절). 이 부분에서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명령하며, 이삭과 한 차례 대화를 주고받는다. 이삭이 질문하고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방식이다. **위기**는 하나님이 지시한 장소에 도착하여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여 죽이려는 급박한 장면이 연출된다(9-10절). **절정**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아들 대신 수풀에 걸려있는 숫양을 번제로 드리면서 이삭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다. 이후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거주한다(11-19절). **결말**은 아들의 생명을 잃을 뻔했던 아브라함이 형제의 출산 소식을 듣게 되는데, 나홀이 아내 밀가와 그의 첩 르우마로부터 총 12명의 자녀를 낳는 장면이다(20-24절). 이 가운데 특징적인 것은 나홀과 밀가의 아들 브두엘이 리브가의 아버지라는 점이다.

최종 텍스트의 관점에서 볼 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번제 및 나홀과 리브가의 족보는 단순히 연결되지 않고 주제의 흐름상 저자의 세밀한 의도가 엿보인다. 이로써, 창세기 22장의 구조 분석과 스토리텔링에 따른 인물의 전환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 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이로써 창세기 22장이 등장인물과 사건 묘사에서 두 단락(창 22:1-19, 20-24)으로 구분된다고 했을 때 이들 단락의 핵심 역할로써 주도적인 인물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창세기 22장 두 개의 단락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보다 큰 틀에서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두 단락에 나타난 등장인물에 관한 본문 분석을 아브라함 가족 내러티브의 관점에서 보도록 하자.

## 2) 창세기 22장 1-19절: 아브라함 중심인가, 이삭 중심인가

창세기 족장 내러티브는 구조상 세 부분으로 나뉜다. 셈과 데라의 족보와 아브라함 가족 내러티브(창 11:10-25:18), 이삭 가족 내러티브(창 25:19-37:1), 야곱 가족 내러티브(창 37:2-50:26)이다.<sup>45</sup> 이 가운데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 가족 내러티브 후반부에 해당하며, 아브라함과 이삭 중심으로 진행되는 첫 단락(1-19절)에서 아브라함은 주어의 위치로 11회(3-6, 8-9, 11, 13-14, 19절) 등장하며, 이외 주어와 대명사를 제외하면 그의 이름이 5회(1, 7, 20, 23절) 더 사용되는데 총 16회 언급되는 셈이다. 이는 창세기 22장 전체 24절 가운데 절반 이상 할당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주어를 포함하여 ‘하나님’ 또는 ‘여호와’ 6회(1-3, 8-9, 16절), ‘여호와의 사자’ 3회(11, 12, 15절)이며, ‘이삭’은 6회(2-3, 6-7, 9절) 각각 등장한다. 이들은 창세기 22장에서 자주 언급되는 아브라함 이름의 빈도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해 보인다. 그러나 이삭의 경우에는 그를 지칭하는 표현이 다양하다. 아브라함과 여호와의 사자가 이삭을 지칭할 때 ‘아이’ 2회(5, 12절), ‘아들’ 7회(7-10, 12-13, 16절), ‘독자’ 3회(2, 12, 16절) 등이 사용되는데 이들을 모두 포함하면 이삭에 관한 총 빈도수는 18회로 세 배나 급격하게 증가한다. 이러한 분포도를 통해 창세기 22장은 얼핏 아브라함에게 무게중심이 치우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삭의 이름이나 호칭 역시 총 빈도수에서 아브라함에 전혀 뒤지지 않으며 오히려 그 이상의 모습으로 새롭게 다가온다.

45 김도형, 윗글 (2019), 221-252; 김도형, 윗글 (2022), 58-66.

렌즈버그에 따르면, 창세기 22장에 관심이 있는 학자들은 12장 1-9절과 22장 1-19절 사이에 유사성을 지적하는데, 이것들은 아브라함 일생에 있어서 중심적인 두 개의 에피소드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렌즈버그는 창세기 12장 1-9절을 ‘아브라함의 영적 오딧세이의 출발’(Start of Abram’s Spiritual Odyssey)로, 창세기 22장 1-19절을 ‘아브라함의 영적 오딧세이의 절정’(Climax of Abraham’s Spiritual Odyssey)으로 지칭했다.<sup>46</sup> 이 분석에 의하면, 아브라함 여행의 시작과 절정이라는 점에서 볼 때 흥미로울 수 있다. 그러나 렌즈버그는 아브라함 사이클(The Abraham Cycle)의 범위를 창세기 11장 27절부터 22장 24절까지만 한정한다. 이후 그는 23장부터 아브라함의 죽음 기사가 나오는 25장 18절까지 언급하지 않고 19절부터 야곱 사이클(The Jacob Cycle)로 넘어가는 실수를 범했다. 만일 이야기의 연결성을 중시하는 스토리텔링의 차원에서 렌즈버그가 다루지 않은 창세기 23장 1절-25장 18절을 포함해야 한다면 필자가 앞에서 언급한 아브라함 가족 내러티브의 조망으로 보는 것이 정당할 것이다.

창세기 22장 전반부는 하나님의 시험과 개인을 넘어서 가족의 순종이라는 주제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관점과 가족의 관점으로 대별하여 바라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시험에 대응하는 가족의 시각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만일 창세기 22장을 아브라함 내러티브의 일부로만 읽는다면 당연히 아브라함이 중심인물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필자가 제안한 대로 아브라함 가족 내러티브로 다시 들여다볼 때 등장인물들 사이에 어느 한쪽으로만 가중치가 이동될 필요가 없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야기 진행 상황에 따라 비중의 여부가 수시로 바뀔 수 있으며, 내러티브의 범주에 따라 등장인물 성격 변화의 가능성은 언제나

46 Rendsburg, 윗글, 27-29.

열려있다.

창세기 첫 부분 창조부터 바벨탑 내러티브까지(창 1:1-11:9)<sup>47</sup> 이후에 등장하는 셈과 데라의 족보와 아브라함 가족 내러티브(창 11:10-25:18)는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족보로 마무리되는 구조이다. 첫 번째 족장 가족 내러티브가 수미쌍관 구조로 구성된 것처럼, 창세기 22장 역시 발단에서 독자 이삭의 생명을 요구하는 것과 결말에서 출산으로 인해 생명이 주어진 것은 댕구 형식이다. 이것은 거울 속의 거울(mirror in the mirror)<sup>48</sup> 또는 텍스트 속의 텍스트(text in the text)와 같은 동심원 구조(Concentric Structure)<sup>49</sup>의 문학적 기능을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정석규의 주장대로 하나님의 시험이 아브라함 가족의 처소인 브엘세바에서 시작되어(창 21:31-33 참조) 다시 브엘세바(Beersheba)로 돌아왔다는 공간적인 이동면에서 볼 때<sup>50</sup> 이러한 수미쌍관 구조가 결코 우연한 것은 아니다(창 22:19).

그러나 창세기 22장의 전반적인 흐름에서 ‘이삭의 상처받은 영혼의 그림자’<sup>51</sup>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절박하거나 처절했던 상황을 아는 듯 모르는 듯 배제된 것 같은 사라 언급이나 등장 부재에 관

---

47 김도형, “창세기 원역사(1:1-11:9)의 내러티브 재구성”, 『생명과 말씀』 28권 3호 (2020), 11-48.

48 발(Bal)은 이와 관련하여 액자기법(*mise en abyme*)에 해당하는 불어를 ‘거울 텍스트’(mirror-text)라고 일컫는다. Mieke Bal, *Narratology, Introduction to the Theory of Narrative*, 2nd ed.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97), 57-58. 이전의 그의 저서 *Lethal Love, Feminist Literary Readings of Biblical Storie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7), 75-76, 87, 92를 보라.

49 이러한 문학적 기법을 적용한 경우로는 J. P. Fokkelman, *King David: Narrative Art and Poetry in the Books of Samuel I (2 Sam. 9-20 and 1 Kings 1-2)*, (Assen: Van Gorcum, 1981). 이와 관련하여 김도형, “동심원 구조로 본 창세기 38장의 위치와 문학적 맥락”, 『대학과 선교』 35집 (2017), 63-101을 참고하라.

50 정석규, 윗글, 204.

51 서명수, 윗글, 24.



한 것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비록 아브라함이 이삭의 희생제사 사건 뒤에 브엘세바로 돌아갔지만, 사라는 브엘세바 북쪽에 위치한 헤브론(Hebron)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이후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창 23:2) 사라를 위해 슬퍼하며 애통하는 모습은 두 사람 사이에 공간적인 분리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더 나아가, 이삭은 리브가를 만날 때 브엘세바 보다 남쪽 네게브 지역의 브엘라해로이(Beer Lahai Roi)에서 거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창 24:62, 25:11). 이런 이유로 창세기 22장 이후 아브라함, 사라, 이삭 모두 따로 분리되었다가 사라와 아브라함 죽음에 이르러서야 헤브론, 즉 마므레(Mamre) 앞 막벨라(Machpelah) 동굴에 순서적으로 함께 안치되는 모습이다(창 23:19, 25:9).

창세기 22장 앞 단락(1-19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시험하기 위해 부르신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내러티브는 아브라함 혼자 주도하거나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들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던 이삭과 텍스트에는 등장하지 않는 사라에 이르기까지 가족 전체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22장은 아브라함 중심이거나 이삭 중심으로 풀리는 것이 아닌 가족 공동체 중심의 내러티브임을 방증하고 있다.

### 3) 창세기 22장 20-24절: 나홀 족보인가, 리브가 족보인가

창세기 22장 두 번째(20-24절)에 소개되는 부분은 아브라함 동생 나홀의 가족에 관한 내용이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22장 1절과 20절 첫 부분에서 거의 동일한 구문(그 일 후에/이 일 후에)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두 번째 단락은 아브라함에게 형제 나홀의 출산 소식을 전하는 것을 제외하면 앞 단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희생제사 관련 내용과 사뭇 동떨어져 보인다. 과연, 나홀과 관련하여 리브가 족보가 언급된 이유는 무엇인가?

www.kci.go.kr

모벌리는, 창세기 22장에서 1-19절이 주된 관심이지만, 20-24절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sup>52</sup> 강성열은 여기에 나오는 족보의 특징적인 인물을 밀가 소생의 막내 아들 브두엘과 그의 딸 리브가라고 말하면서 리브가를 통해 나홀의 가계가 자세하게 소개된 이유를 알 수 있다고 설파한다.<sup>53</sup> 이것은 나홀 족보가 다음에 나오는 24장에서 이삭의 결혼 이야기를 예비하는 것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웬햄(Gordon J. Wenham) 역시 1-19절에 나오는 이삭의 희생에 관한 높은 긴장이 있고난 뒤, 20-24절은 다소간 약화되는 부분을 보이면서도 이삭이 결혼을 하게 될 것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며, 이에 관한 발전은 창세기 24장까지 지연된다고 보았다. 또한, 웬햄은 리브가를 아버지와 삼촌들과 함께 족보에 올라간 유일한 여성으로 주목하지만,<sup>54</sup> 나홀의 아내 밀가와 첩 르우마도 함께 언급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도르시는 창세기 22장의 두 번째 단락 ‘선택받지 못한 족보: 나홀의 가족(20-24절)’을 ‘선택받지 못한 족보: 이스마엘의 가족(25:11-18)’과 맺구 형식으로 다룬다.<sup>55</sup> 그러나 ‘선택받지 못한 족보’라면 굳이 아브라함 가족 내 러티브에서 왜 언급되고 있으며, 창세기 23장 이후 두 번째 족보에서는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루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유연희는 성서에 나오는 족보가 대부분 한 명의 남자를 비롯해서 그룹의 자손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창세기 22장 19-24절에서만 전형적인 형식과 다르게 여성의 이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지적한다.<sup>56</sup> 계

52 모벌리, *읽글*, 179.

53 강성열, 「현대인을 위한 창세기 강해」(서울: 장로교출판사, 1998), 196; 유연희, *읽글*, 16. 유연희는 직접화법으로 구성된 족보의 문단이 리브가를 부각하는 집중 구조임을 설명한다(ABXB'A').

54 Wenham, *읽글* (2000), 121.

55 Dorsey, *읽글*, 57.

56 유연희, *읽글*, 16-17.

다가 유연희는 이렇게 주장한다. “... 리브가의 탄생 보고는 중요하다. 이 정보가 구조의 중심에 있다는 것과 브두엘이 이 족보에서 아이를 낳은 유일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리브가의 중요성을 보여준다.”<sup>57</sup> 뿐만 아니라 사라의 죽음 기사와 아브라함이 막벨라 동굴을 구입하고 사라를 장사하는 내용(23장) 이후 창세기 24장에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된다.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 가족 내러티브 가운데 가장 많은 구절(67절)을 할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창세기 22장 첫 단락(1-19절)에 사라에 관한 내용이 부재한 상태에서 두 번째 단락(20-24절)이 족보를 통해 제시하려는 것은 첫 번째 족장 배우자의 위치에 있던 사라에서 리브가에게 위치의 변화가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이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전이’<sup>58</sup>로 볼 수 있으며, 두 단락이 생명에 관한 주제를 함께 다루고 있는 것도 자연스럽게 일관성 있는 귀결이다. 이로써 창세기 22장 20-24절이 리브가에게 있어서 서막의 역할을 하는 것은 자명하다. 23장 사라의 죽음, 24장 이삭의 배우자로서 리브가의 등장, 25장 아브라함의 죽음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전 시대는 지나가고 22장부터 새 시대의 여명으로 등장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창세기 22장은 앞 단락(1-19절)과 더불어 뒤 단락(20-24절)에 해당하는 나홀과 리브가의 족보를 포함해서 읽어야만 한다. 이 장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는 믿음과 순종에 관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생명을 보존받는 이삭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것과 동시에 나홀의 족보 속에 등장하는 리브가를 동시에 눈여겨 볼 수 있다. 창세기 22장이 족보로 마무리되는 이유는 이 부분이 가족 내러티브의 일부임을 규정하는 또 다른 모습이다.

---

57 윗글, 18.

58 윗글, 22.

## 4. 결어

창세기 22장은 텍스트의 독자에게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을 보여주지만, 상대적으로 의문의 여지가 많은 이야기이다. 비록 이삭이 희생제사로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늦게 얻게 된 독자를 하나님께 바치므로 순종한다는 설정에서부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또 다른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 사실상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비롯하여 어느 누구와도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만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까지 확장하여 해석해야 한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번제 및 나홀과 리브가의 족보 내러티브’로 구성된 창세기 22장은 두 개의 단락(1-19, 20-24절)을 따로 분리해서 읽을 필요가 없다. 이들은 함께 읽혀져야 한다. 비록 두 단락이 문학의 형식이나 내용상 서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아브라함 가족 내러티브’(창 11:10-25:18)라는 공동체의 틀 안에서 텍스트를 스토리텔링으로 다시 읽을 때 이들은 필수적이고 인과관계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앞 단락이 하나님의 차원에서 생명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뒤 단락은 순종의 결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동생 나홀까지 아내와 첩의 출산으로 인해 다산의 생명이 주어지는 복을 받게 된다. 그런데 특징적으로 여기에 처음으로 언급된 리브가의 출생 소식은 앞 단락에 나오는 이삭의 희생제사와 결코 동떨어진 내용이 아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하고,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며, 이삭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 아브라함에 이어 두 번째 족장으로 승계할 준비를 하게 된다.

창세기 22장은 21장 이삭의 출생과 23장 사라의 죽음 사이에서 이삭과 리브가의 존재를 부각하는 장면의 역할을 담당한다. 리브가의 입

장에서는 23장 사라의 죽음 이후, 24장에서 이삭의 아내로서 본격적인 자기 위치를 차지하며, 25장에서 아브라함 죽음 기사와 이스마엘의 족보와 더불어 아브라함 가족 내러티브는 마무리된다. 이런 점에서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 가족 내러티브 가운데 마지막 장면으로 나아가는 교두보 기능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린 이삭과 장차 아내가 될 리브가를 소개하는 부분이며 가족 공동체로서의 중요성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창세기 22장은 창세기의 족장 내러티브와 제1내러티브(창~왕하)<sup>59</sup>에 이르기까지 가장 넓은 메타내러티브의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다. 이 장은 두 번째 족장인 이삭 가족 내러티브(창 25:19-37:1)가 시작되기 직전의 압전과 같은 위치에 서 있다. 이어서 세 번째 족장 내러티브(창 37:2-50:26)의 가족 대표에 해당하는 야곱(이스라엘)과 그의 자손이 앞으로 400년 이상 애굽 생활(창 15:13, 출 12:40), 출애굽과 광야방황, 가나안 정착 및 사사시대와 왕국시대를 거쳐 바벨론 포로에 이르기까지 장차 다가올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기념하는 대서사시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

## 참고문헌

- 강규성, 「창조주 하나님의 방문」 (서울: 예영B&P, 2010).
- 강성열, 「현대인을 위한 창세기 강해」 (서울: 장로교출판사, 1998).
- 게리 E. 쉬니처, 「토라 스토리」 (박철현 옮김),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14). 원제 Schnitjer, Gary Edward, *The Torah Story* (Grand Rapids: Zondervan, 2006).
- 김도형, “유다-다말 이야기 해석에 대한 새로운 제안”, 「구약논단」 50집 (2013), 172-204.
- \_\_\_\_\_, “내러티브 비평과 구약 제1내러티브(창세기~열왕기하)의 구조”, 「구약논단」 62집 (2016), 155-191.

59 김도형, “내러티브 비평과 구약 제1내러티브(창세기~열왕기하)의 구조”, 「구약논단」 62집 (2016), 155-191.

- \_\_\_\_\_, “동심원 구조로 본 창세기 38장의 위치와 문학적 맥락”, 『대학과 선교』 35집 (2017), 63-101
- \_\_\_\_\_, “데라 족보(창 11:27-32)의 선교적 기능-내러티브 관점을 중심으로”, 『대학과 선교』 38집 (2018), 163-187.
- \_\_\_\_\_, “이삭 가족 내러티브(창 25:19-37:1)의 문학적 구조와 스토리텔링”, 『구약논단』 74집 (2019), 221-252.
- \_\_\_\_\_, “창세기 원역사(1:1-11:9)의 내러티브 재구성”, 『생명과 말씀』 28권 3호 (2020), 11-48.
- \_\_\_\_\_, “창세기 내러티브 읽기: 익숙함과 낯설음의 주제”, 『구약논단』 84집 (2022), 43-76.
- 김상기, “이사야 63장 16절의 관점에서 본 아케다 이야기”, 『신학연구』 57집 (2010), 8-32.
- 김의원, 『창세기 연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4).
- 김재구, 『창세기 로드맵』 (서울: 홍림, 2018).
- J. W. 로저슨, R. W. L. 모벌리, 『창세기 연구 입문』 (민경진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5), 165. 원제 Rogerson, J., *Genesis 1-11, Old Testament Guide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1); R. W. L. Moberly, *Genesis 12-50, Old Testament Guides* (Sheffield: JSOT Press, 1992).
- 민경구, 『다시 읽는 창세기』 (서울: 도서출판 이레서원, 2019).
- 서명수, “아케다(Aqedah) 이야기(창 22:1-9)의 재해석”, 『구약논단』 14집 (2003), 7-25.
- 우진형,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제사: 창 22장 1-19절의 편집 비평적 접근”, 『구약논단』 32집 (2009), 132-150.
- 월터 브루그만 외, 『신학의 렌즈로 본 구약개관』 (차준희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133-134. 원제 Brueggemann, W. et al., *A Theological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Nashville: Abingdon Press, 1999).
- 유연희, 『아브라함과 리브가와 야곱의 하나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 이영미, “성서주석과 해석의 윤리: 창 22장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30집 (2008), 10-30.
- 정석규, 『구조로 읽는 창세기』 (서울: 프리칭아카데미, 2006).
- 제임스 K. 호프마이어, 고든 J. 웬햄, 켈튼 L. 스팅스, 『창세기 원역사 논쟁: 창세기 1-11장이 장르에 관한 세 가지 견해』 (주현규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0). 원제 Hoffmeier, James K., Gordon J. Wenham, and Kenton L. Sparks, *Genesis: History, Fiction, or Neither? Three Views On the Bible's Earliest Chapters*

- (Grand Rapids: Zondervan Academic, 2015).
- 트렘퍼 롱맨 3세, 「어떻게 창세기를 읽을 것인가?」 (전의우 옮김), (서울: IVP, 2006), 169-171. 원제 Longman III, Tremper, *How to Read Genesis*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5).
- 하계상, “신정론적 관점에서 본 아케다(The Aqedah): 최종 형태의 본문으로서의 창세기 22장 1-19절 새로 읽기”, 「구약논단」 54집 (2014), 90-126.
- 한동구, 「오경이해」 (서울: 프리칭아카데미, 2006).
- Alexander, T. Desmond, “Genesis 22 and the Covenant of Circumcision”, *JSOT* 25 (1983), 17-22.
- Alter, Robert, *The Art of Biblical Narrative* (New York: Basic Books, 1981).
- Amit, Yairah, *Reading Biblical Narratives: Literary Criticism and the Hebrew Bible*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1).
- Bal, Mieke, *Lethal Love, Feminist Literary Readings of Biblical Storie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7).
- \_\_\_\_\_, *Narratology, Introduction to the Theory of Narrative*, 2nd ed.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97).
- Blenkinsopp, Joseph, *Abraham: The Story of a Life* (Grand Rapids: W.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15).
- Boase, Elizabeth, “Life in the Shadow: The Role and Function of Isaac in Genesis: Synchronic and Diachronic Readings”, *Vetus Testamentum* 51.3 (Jul. 2001), 312-335.
- Coats, George W., “Abraham’s Sacrifice of Faith: A Form-Critical Study of Genesis 22”, *Interpretation* 27 (1973), 389-400.
- \_\_\_\_\_, *Genesis, with an Introduction to Narrative Literature* (Grand Rapids: W.B. Eerdmans Pub. Co., 1983).
- Dorsey, David A., *The Literary Structure of the Old Testament: A Commentary on Genesis-Malachi* (Grand Rapids: Baker Books, 1999).
- Doukhan, Jacques, “The Center of the Aqedah: A Study of the Literary Structure of Genesis 22:1-19”, *Andrew University Seminary Studies* Vol.1 (1993), 17-28.
- Exum, J. Cheryl, *Fragmented Women, Feminist (Sub) versions of Biblical Narratives* (Valley Forge: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3).
- Fokkelman, J. P., *King David: Narrative Art and Poetry in the Books of Samuel I. (2 Sam. 9-20 and 1 Kings 1-2)*, (Assen: Van Gorcum, 1981).
- Jacques Doukhan, “The Center of the Aqedah: A Study of the Literary Structure of

- Genesis 22:1-19”, *Andrew University Seminary Studies* 31.1 (1993), 17-28.
- Hamilton, Victor P.,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17*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0).
- \_\_\_\_\_,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8-50*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5).
- Gunkel, Herman, *Genesis*, Mark E. Biddle(trans.), (Macon: Mercer University Press, 1997).
- Rendsburg, Gary, *The Redaction of Genesis* (Winona Lake: Eisenbrauns, 1986).
- Seters, John Van, *Abraham in History and Tradition*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75).
- Ska, Jean-Louis, *Introduction to Reading the Pentateuch* (Winona Lake: Eisenbrauns, 2006).
- Speiser, Ephraim A., *Genesis* 3rd edn; AB 1; Garden City, (NY: Doubleday & Company Inc., 1982).
- Trible, Phyllis, “Genesis 22: The Sacrifice of Sarah”, Jason P. Rosenblatt and Joseph C. Sitterson, Jr.(ed.), *“Not in Heaven”: Coherence and Complexity in Biblical Narrative* (Bloomington &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91), 170-191.
- Von Rad, Gerhard, *Genesis: A Commentary* (London: SCM Press LTD, 1972).
- Walsh, Jerome T., *Style and Structure in Biblical Hebrew Narrative*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2001).
- Wenham, Gordon J., *Genesis 1-15* (WBC 1; Grand Rapids: Zondervan, 1987).
- \_\_\_\_\_, “The Akedah: A Paradigm of Sacrifice”, David P. Wright, David Noel Freedman, and Avi Hurvitz(ed.), *Pomegranates Golden Bells: Studies in Biblical, Jewish, and Near Eastern Ritual, Law, and Literature in Honor of Milgrom* (Winona Lake: Eisenbrauns, 1995), 93-102.
- \_\_\_\_\_, *Genesis 16-50* (WBC 2; Grand Rapids: Zondervan, 2000).
- Zierly, Wendy, “In Search of a Feminist Reading of the Akedah”, *Nashim: A Journal of Jewish Women’s Studies & Gender Issues* 9 (2005), 10-26.

#### 검색어

창세기 22장, 아브라함 가족 내러티브, 거울 이미지 기법, 스토리텔링,  
제1내러티브(창~왕하)

www.kci.go.kr



[ ABSTRACT ]

## The Literary Position and Storytelling of Genesis 22: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brahamic Family Narrative

Do-Hyung Kim  
Seoul Christian University

This study suggests that Genesis 22 should be rea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brahamic family narrative (Gen 11:10-25:18). This chapter is divided into two parts (vv. 1-19 and vv. 20-24). Most readers have read the first part as “The Test of God”, “The Faith of Abraham”, and “The Sacrifice of Isaac.” Despite being a test of God, the development of the story is dedicating a son obtained in old age by the covenant. This is difficult to interpret from an ethical point of view. In fact, the way the plot proceeds in the absence of Abraham’s wife, Sarah, raises curiosity right up to the end of the first part. In order to solve this structurally, the literary position of Genesis 22 in the Abrahamic family narrative can be understood as a chiasmic pattern (ABCDEE’D’C’B’A’) or mirror imaging according to five themes (genealogy-selection-protection-selection-genealogy).

Genesis 22 cannot be read separately from the first part (vv. 1-19) and the second part (vv. 20-24). They must be read together. While the first part is centered on Abraham’s faith and Isaac’s sacrifice, the second part heralds the dawn of the next generation of patriarchs through the birth of Rebekah. When this chapter is re-read according to the

www.kci.go.kr

storytelling technique (narrative), it can be seen as the composition of “Abraham and Isaac’s burnt offering as well as Nahor and Rebekah’s genealogical narrative.” In particular, the beginning (requiring life), the crisis (the urgency of life), and the ending (being given life) all have a common denominator under the theme of “life”, as the first and last parts show the format of an inclusio. Genesis 22, therefore, occupies a prelude to the Primary Narrative (Genesis~2Kings) as a precursor to the end of the first generation in the patriarchal narrative of Genesis to the next, and as a meta-narrative of the rise and fall of Israel in the Old Testament.

key words

Genesis 22, Abrahamic Family Narrative, Mirror Imaging, Storytelling, Primary Narrative (Genesis~2Kings)

투고일 : 2023년 07월 27일

심사일 : 2023년 08월 02일

게재 확정일 : 2023년 08월 09일

www.kci.go.kr